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7월 18일(주일) 제1353호

이재훈 담임목사 목회서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세 번째 비대면 예배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충격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분명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더욱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두 주간으로 이 비대면 예배기간이 끝날지 아니면 더 지속될지는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기간이 결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회의 성장은 신비였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다른 이들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관습과 제도들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3세기 동안 10년마다 거의 40%씩 성장하여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기 직전에는 약 5-6백만 명(로마제국 모든 인구의 8-12%)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알렌 크라이더,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 p28). 이러한 성장의 비밀이 무엇이었을지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많은 글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교훈이 '인내'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박해와 전염병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내의 덕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사랑하였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기보다 그것들을 살아냈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인내의 덕에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돕는 사랑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깊은 믿음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회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롬 5:3b~4).

/ 이재훈 목사 그림



7월 25일까지 온라인 영상예배!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및 CGNTV 활용 수도권 대면 아웃리치 및 VR선교 체험관 운영 중단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7월 25일(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예배로 드리고, 아웃리치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드려야 한다. 차세대(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와 대학청년부(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부)는 전용 유튜브 채널에서 예

배를 드리면 된다.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주중 예배도 온라인 영상예배로 드려야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장소도 사용할 수 없다.

여름 아웃리치도 방역지침을 따라 실시한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면 아웃리치가 일시 중단되었다. 수도권에서는 각 다락방별로 온라인 아웃리치만 해야 한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VR선교 체험관도 일시 중단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진

행되는 대면 아웃리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예배본부에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의 영상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각 공동체 및 다락방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아웃리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면서 "비수도권에서 대면 아웃리치와 VR선교 체험관을 운영할 때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김영선, 홍하영 기자

온누리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8월 27일까지 온라인 강의

온누리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이 개강했다. 7월 4일(주일)부터 8월 27일(금)까지 이어진다. 여름방학특강은 총 58개(서빙고 17개, 양재 27개, 부천 3개, 수원 2개, 대전 4개, 남양주 1개, 평택 1개, 강동 2개, 양지 1개) 강좌다. 모든 강의는 유튜브 채널이나 실시간 줌(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각 캠퍼스 담당 간사가 영상링크를 보내준다.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캠퍼스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온누리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주제가 풍성하다.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훈 목사), 종교개혁 4인방과 함께 하는 차 한 잔(정한호 목사), 인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이길탁 목사), 온라인 국내 기독교 문화유산탐방(조바울 목사), 세계 교회사-중세 교회사(하청훈 목사) 등이 있다.

문의: 02-3215-3280, 각 공동체 양육총무

/ 정현주 기자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물하세요!”

CGNTV 이웃사랑 캠페인

CGNTV가 이웃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CGNTV는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한다. '러브더월드'와 함께 미혼 한부모 가정을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7월 25일(주일)까지 이어진다. CGNTV 캠페인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60104)로 후원하면 된다.

CGNTV는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도 한다. 지역교회, 국내외 선교사, 일본 무목교회 등지에 CGNTV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를 선물하는 운동이다. 8월 31일(화)까지 이어진다.

CGNTV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CGNTV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02-796-2243)로 신청하면 된다. 캠페인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05904)로 약정한 셋탑박스 가격을 입금하면 된다. 한 대당 15만 원(일본 제외 해외 배송은 배송비 5만 원 추가)이다.

문의: 02-796-2243(CGNTV)

올여름 안전관리 이렇게 합시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와 함께 ‘건강한 생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시작되었다. 여름철이 되면 더위와 높은 습도로 생리 기능에 이상이 생겨 면역력이 저하되고 체력이 고갈되어 피로감과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또한 세균 등의 미생물이 쉽게 번식해서 식중독, 비브리오 패혈증 등의 각종 여름철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올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 사전 예약제 시행, 발열 체크 생활화, 좌석 QR코드 부착,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야외 드라이브인 예배, 토요일 예배 신설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성도님들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린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7월 현재 거의 매일 1천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온누리교회도 올여름 국내외 아웃리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여름철을 맞아 접촉에 의한 활동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대에 지켜야 할 일반적인 안전관리 방역지침과 함께 여름철 대표적인 질병 및 예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올여름을 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담은 사역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및 교회 공동체의 건강도 잘 지켜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코로나19 시대에 지켜야 할 안전관리 방역 지침

1.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다른 성도와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6.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만남 자제하기

교회 출입 및 예배

1. 예배 사전 예약
2.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명부(전자 또는 수기) 작성
3.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4. 전자 태그가 부착된 커버 의자 작성
5.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기타

1.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2. 교회 식당: 분산된 시간에 이용하고 머무

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3. 소그룹 모임: 예배 제외한 소그룹 모임 최소화 및 방역지침 준수
4. 계수실: 계수 전후 손 세척 및 계수 인원 최소화 운영 등

여름철 대표적인 질병 유형 및 예방법

1. 식중독: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 섭취 때문에 발생하는 소화기계 증후군을 말한다. 심각하지 않은 식중독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지만 구토나 설사가 심하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2. 일사병: 일사병은 흔히 ‘더위 먹은 병’이라고 불린다. 더운 공기와 강한 햇볕에 의해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 보통 어지러움, 두통, 피로 등의 증상에서 심한 경우 근육통, 저혈압, 실신, 정신이상 등 특이 증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사병은 열분과 수분 부족에 의해 나타나므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한다.

3. 냉방병: 냉방병은 여름의 고온 상태와 냉방이 잘 된 실내를 오가는 적응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자율 신경계가 지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한 에어컨 안에 레지오넬라균의 증식이나 환기되지 않은 공기도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벼운 감기, 몸살, 두통, 소화불량 등이 그 증상이다. 냉방병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에어컨 온도를 25~26℃로 맞추고 실내외 기온 차가 5~6℃를 넘지 않도록 실내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적절한 체온 유지 등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4. 유행성 눈병(결막염): 결막염에 걸리면 충혈, 눈물 흘림, 눈부심, 이물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주 정도 지속된다. 결막염이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는 특성을 알고 주의한다면 감염 가능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비누로 손을 수시로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을 비비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눈물이나 눈곱을 닦을 때는 깨끗한 휴지로 살짝 닦아내는 것이 좋다.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

1. 수분을 유지한다: 날씨가 덥고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 덥다고 얼음물을 벌컥 마시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2.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항상 손발을 자주 씻고 물과 음식을 끓여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 통해 감염성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적당하게 유지한다: 냉방병은 체온이 급격하게 자주 바뀌는 데서 발생한다. 실내외 온도 차를 5℃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하고 실내온도는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다.

4. 일광 화상을 입었다면 찬물로 찜질을 한다: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어 피부가 따갑고 화상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를 수 있다. 차가운 우유나 찬물로 찜질을 하고 피부가 자극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일사병을 조심한다: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 일사병에 걸릴 수 있다. 여름에 운동할 때는 2~4잔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복은 헐렁한 옷을 위주로 입는다.

6. 자외선을 차단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일사병에 걸릴 수 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얇은 긴소매 옷과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7. 열대야를 극복한다: 열대야로 인해 몸이 무력해지고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에어컨이 있다면 실내온도를 항상 26~28℃로 유지하고 자기 전에는 꺼주는 것이 좋다. 햇볕이 강하지 않은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취침 전에는 과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피로를 풀어 준다.

8. 찬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인다: 체온이 떨어지면 설사 등을 할 수 있다. 찬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거나 선풍기를 틀어놓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찬물이나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는 선풍기 작동시간을 설정해두고 자는 것이 좋다.

9. 비타민과 단백질을 섭취한다: 더운 여름에 체력소모가 커지면서 온몸이 처지고 더위로

피로감이 두 배 정도 더해진다. 비타민과 단백질을 챙겨 먹어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10. 유통기한을 잘 지킨다: 냉동 상태의 음식물은 오래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정한 보관 기간이 경과 된 식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아웃리치 안전관리 요령

국내 아웃리치 및 수련회

1. 숙소 및 행사장 점검 사항
 - 정식 허가 받은 장소 여부
 -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
 -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산사태로 인한 위험 요소

- 전기, 소방시설 등의 안전 점검 여부

- 조명, 음향, 무대 등의 안전 여부

- 야생동물 출몰 여부

-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의 접근성

- 현지 연관 교회 또는 관리자와 협력 여부

2. 이동 수단 점검 사항

- 임차 버스의 차령(車齡) 5년 이하 여부 및 운전자 적정성

- 임차 차량의 적정보험 가입 여부

3. 기타 점검 사항

- 물놀이 안전 수칙, 가스 안전 수칙, 일사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 사전교육 여부

- 식중독 예방, 유해 및 위험 동물(말벌, 산돼지, 뱀 등)에 대한 대비 방법 등 사전교육 여부

국외 아웃리치 등

1. 현지 협력 기관에 대한 점검 사항

- 현지 협력 기관의 정체성 확인(선교단체 또는 NGO 등)

- 현지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망 확보 및 운영역량

-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능력

- 아웃리치의 목적 및 사전교육에 대한 점검

2. 아웃리치 팀 구성 및 사전교육 및 숙지

- 아웃리치의 목적 및 특성,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

- 현지 기후 등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

- 개인 건강에 대한 사전 확인 등

3. 아웃리치 팀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 아웃리치 팀의 자체 안전관리 조직 구성(팀 리더 및 안전관리자 선임)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소그룹 리더 및 팀 편성(조당 3~4명)

- 팀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대응 방법 숙지

- 현지 협력 기관의 행동 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4. 출국 전 준비사항 점검

- 건강진단, 예방접종 시행 및 개인별 복용 의약품 준비

- 개인별 신상에 대한 자료 확보(비상 연락망, 혈액형, 여권 사본 등)

- 여행자 보험 일괄 가입

- 서약서, 각서 등 필수적인 서류 작성 및 현지의 여행 안전 정보 확인 등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패막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 다. 그러나 그 길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뤄졌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1~2절).

이 장소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는 40세부터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끌어내셨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셋째, 성막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가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씩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굽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3~4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희망이나 의욕이 없고 하루하루 장인의 양을 치면서 생활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아굽을 발견하셨다. 그분

특별한 보물

출애굽기 19:1~8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아굽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동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퍼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신 32:10~11).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선하심,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경청하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5~6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세 가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셋째,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 중에서도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 세상 이방 민족의 중보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복음의 통로가 되는 막중한 책임과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 삼아주셨

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비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결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7~8절).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응답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반응과 응답과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는 특별한 보물이다. 너는 나의 결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미국 캘빈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기본 사고유형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사상의 토대가 지성적인 삶으로부터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배제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나와 주변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비춰봤을 때 사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초, 중, 고등학교의 공교육과 과학계의 패러다임이 된 진화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신화로 만들어버렸다. 나의 경우 젊은 시절 형성된 진화론적 세계관이 40대 중반 진정한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내 학문 세계의 패러다임으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다. 성(聖)과 속(俗)을 구분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는 이원론적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었다. ‘교회 속의 나’와 ‘세상 속의 나’가 상호 모순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

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다.

데이빗 A. 노에벨의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을 <충돌하는 세계관>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이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을 교회당 안으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부정하게 만들려는 것이 진화론을 추종하는 다양한 무신론적 세계관의 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충돌하는 세계관>의 생물학 부분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도 고민도 없이 패러다임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새롭게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놀람게도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진화론이 불확실한 가정이라는 기반 위에 거짓 증거들을 근거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무신론의 이념들과 다른 유신론 세계관들이 합심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려는 끝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입된 무신론적 세계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자신의 신앙과 세상의 지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무신론적 인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현재의 교육은 세속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의 지적 기반인 성경의 지식을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화로 폄하한다. 미국의 포스트모던 교육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는 “우리는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인본주의적 세속화가 주는 이점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혐오감이나 불신 없이 다윈이나 프로이트 저서를 읽고, 동성애나 젠더 이슈에 대한 시각을 우리와 흡사하게 맞추어 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공언한다. 우리는 유식해 보이는 인문학이나 아름답게 보이는 예술로 포장된 세속의 무신론 이념의 허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학문을 할 때 어떤 분야 정보와 다른 분야의 정보 사이에 통합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정보 사이에 모순이 없는 통합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수록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학문별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웠다고 치자. 법정의 측면에서 동일한 죄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배웠고, 정치 정의에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배웠다고 하자.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이런 정보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 만일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과 같은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우리가 배운 법정 정의와 정치 정의가 분명히 충돌하게 된다.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합하면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 찬반양론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 후에야 정의에 대한 지적 정보가 통합되어 지식의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

서는 절대적 기준에 합당해야 할 것이다. 무신론자,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뉴에이지와 같은 범신론에서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기독교에는 성경의 통전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새로운 지식은 그 기준에 대비해서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수용된 지식은 자신이 가진 진리에 합하는 지식체계 속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지식과 진리를 지적으로 통합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없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의 모든 선택과 행위의 기준으로 실제 작동할 때 신앙과 지식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의 여부에 그 기준을 두셨다(마 7:24~27).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에 충동해오는 다른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통합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에서(고후 10:4-5)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한다(끝).

묵상: 전문분야의 지적 정보와 성경의 진리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 ②

놀라운 축복, 놓칠 수 없는 가나안 땅 ‘부부’

부부를 설명할 때 왜 영적 세계라는 말을 사용할까? 그만큼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부라는 영역이 가진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 때문이다. ‘부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과 고통이 오고, 자유를 잃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 일관성 있게 쓰이는 표현이 있다. ‘간음’ 혹은 ‘음란’이다. 이스라엘이 짓는 죄의 근본은 우상숭배며, 우상숭배는 부부 관계에서 외도와 같다.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이 외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된 상태를 망가진 부부의 모습에 비유하셨다.

성경 한 권을 통틀어서 부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격렬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다. ‘호세아’다. ‘호세아’라는 예언자의 부부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선명하고 뜨겁게 보여주셨다. 아름다운 부부의 원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 ‘아가서’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다. 원어로 보면 놀랄 만큼 적나라한 성적인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을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메시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는 매우 사적인 관계다. 그 관계는 눈에 보이는 남녀의 연합 혹은 사회·문화적 제도로서의 부부라는 틀을 넘어서는 비밀을 담고 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가 그것이다.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영적인 관계의 한 부분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인류의 역사와 시간의 끝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계 21:1~2).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결혼식이다. 부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 잔치로 끝이 난다. ‘창세기’에서 부부가 최초로 이루어진 문화적 창조물로 제시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구속사의 막을 내리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부부의 관계는 천국의 프리뷰이며, 그림자다.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함과 연합을 누릴 때 느끼는 기쁨과 안정감은 어떠한 소유나 물질, 명예로도 얻을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찬양은 아내를 향한 것이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부부 관계를 디자인하셨다. 부부의 연합은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다른 문화적인 창조 활

동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인격이 인격을 창조해내는 잉태와 출산은 인간의 창조 행위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닮았다. 자녀는 자신과 절묘하게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존재다. 자녀는 하나의 기적이다. 잉태와 출산은 한 가문과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이다. 출산을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존속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 자녀 양육에서도 부부 관계가 핵심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부 관계다.

부부는 놀라운 축복의 영역이다. 놓칠 수 없는 가나안 땅과 같다. 또 부부는 현대 영적 전쟁의 주요 거점임과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명의 자리다.



조준목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 108배를 드리던 불교신자 한정덕 성도가 예수를 만났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앞에서 김밥집을 하다 예수를 믿었다. 그 신앙이 참 귀해서 본지(1147호 2017년 5월 14일자)에서 '108배에서 새벽기도로!' 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삶과 신앙을 소개했었다. 잊고 살다 또 한번 그녀의 소식을 듣고 도저히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한정덕 성도는 보도 이후 다시 일어서기 힘든 실패를 경험하고 흘러간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어느 빈집에서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다. '한국무형문화유산 강정 명인' 칭호도 받았다. '예수'와 '강정'만 남았을 때 펼쳐진 한정덕 성도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수’와 ‘강정’만 남았을 때

한정덕 성도 그 두 번째 이야기

한정덕 성도는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듯 가정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이연재 성도를 만났다. 한정덕 성도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이 남달랐다. 그중에서도 강정 만드는 솜씨가 탁월했다. 2015년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빙고온누리교회 앞에 김밥집을 차렸다. 대박이 터졌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김밥을 팔았다. 그리고 매일 108배를 드리던 불심 깊은 그녀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용산구 남영동 숙명여대 앞 대로변에 '한정덕 솜씨'라는 강정 카페를 차렸다. 여기까지가 한정덕 성도의 첫 번째 이야기다.

그 자리에 '한정덕 솜씨'를 차린 이유

5만 원, 10만 원 하는 고가의 강정을 임대료가 높은 여대 앞 대로변에서 판다는 전략 자체가 실패였을까. 1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였는데 '한정덕 솜씨'를 찾는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한정덕 성도도 카페 위치가 별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한정덕 솜씨'라는 이름을 건 카페를 차린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이 제 이름을 보고 찾아오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10살, 7살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왔잖아요? 제 평생의 아픔입니다. 매일 108배를 드린 이유도 그 아픔 때문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도 차마 도망쳐 나온 못한 어머니가 먼저 아이들을 찾아갈 수 없었거든요. '한정덕'이라는 이름이 정말 싫어서 버리고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이름이니가 간판을 '한정덕 솜씨'라고 달았습니다.”

몇몇 단골손님은 있었지만 가게 월세 내기도 힘든 시간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은 한정덕 성도의 두 자녀였다.

“아이들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정덕 솜씨'라는 가게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손님인 척 제게 연락했고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느덧 20대, 3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염치없게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더니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 손찌검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피해

서 교회에 갔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금 정성으로 보살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영동에 차린 '한정덕 솜씨'는 망했지만,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게가 망한 건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망연자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더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때 단골손님 이던 한 노신사가 투자를 제안했다.

“제가 강정 만드는 솜씨도 좋지만, 약용식물로 차리는 밥상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방에 눈여겨본 낯익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숙박할 수 있는 일종의 힐링타운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노신사 한 분이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안되는 남영동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일사천리로 남영동 가게 정리를 하고 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지 계약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그 노신사와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사를 며칠 남겨두고 겨우 통화가 됐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노신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노환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한정덕 성도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공터에 이삿짐을 쌓아두고 망연자실했다.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제 눈으로 봐야 믿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남영동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거라곤 집기뿐이라 그야말로 거리에 나앉은 상태였습니다. 컨테이너를 두고 버터볼까 싶기도 했는데 돈이 있어야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지 않겠어요? 일단 이슬이라도 피해야겠다 싶어서 지낼 곳을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이끌려 찾은 곳이 지금 지내고 있는 옥산마을입니다. 옥산성결교회의 도움으로 10년 된 빈집을 구했습니다. 10년이나 비어있었으니 그야말로 흉물이었습다.”

약간의 수리와 청소를 했더니 흉물이던 빈집이 아늑한 안식처가 됐다. 더는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망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 '강정'을 붙잡고 회복한 한정덕 성도.

렇게 평안했다.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누워서 새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함께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30분 거리에 양지온누리교회가 있어서 양육도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전통 한과강정 명인'

강정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마케팅을 할 줄 몰라서 입소문만으로 강정을 팔았다. 유명 제과업체 사장도 명절마다 중요한 지인들에게 한정덕 성도가 만든 강정을 선물할 정도로 맛과 솜씨가 최고였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현대식 제조설비도 꾸렸다. 그렇게 3년을 부지런히 강정을 만들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홍보글을 올리고 싶어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강정을 먹어본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전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오시는 손님이 드문데 지난해 말 즈음 한 분이 오셔서 둘러보고 강정을 사가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사)한국무형문화예술

교류협회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명인 심사를 받고 올해 3월 한국무형문화유산 '전통 한과강정 명인' 칭호를 받았습다.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명인처럼 살라는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시간 남짓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시간 자체가 힐링이었다. 시골 풍경과 새소리를 벗 삼아 한정덕 성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듣고, 명인의 솜씨로 만든 강정과 음식을 먹었다. 일하러 왔다가 호강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정덕 성도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다. 사역에 지친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을 섬기고 싶다는 비전이다. 한정덕 성도 집 앞에 있는 폐가를 사서 수리할 계획이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좌절했던 힐링타운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제가 이곳에서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세계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다는 바람이 큼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저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찾아주시면 건강한 식사와 강정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언제든지 찾아주시시오”

한정덕 솜씨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내로 20-6
문의: 010-5711-0051

“당신의 신용점수는 몇 점입니까?”

크리스천을 위한 ‘슬기로운 신용관리’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겠고,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한다.

금융과 경제생활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얼마나 잘 갚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렉스(FLEX)’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유튜브나 TV를 보면 “플렉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등의 말이 많이 보인다. 플렉스의 사전적 의미는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다’ 혹은 ‘(신축성 있는) 전선(電線)’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 요즘에는 ‘부나 귀중품 등을 사면서 자신을 과시하다, 뽐내다, 자랑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쓰면서 과시한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플렉스 소비를 할 때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것이다. 과시하기 위해, 뽐내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한 카드대금은 곧 빚으로 돌아온다. 과도한 카드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신용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과도한 부채, 신용카드 남용은 맘몬의 또 다른 형태

슬기로운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점수란 개인이 돈을 빌려 가서 얼마나 잘 갚을 수 있을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해서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대출할 때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단 몇 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나뉘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개선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당신의 재정 상황이 건강하다면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부채를 쓰도록 부추긴다. 높은 부채한도가 높은 신용도의 상징인 듯 조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주수입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예뻐서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1. 연체 없이 신용카드 대금 갚기
2. 신용카드 사용은 꼭 필요한 생활비만 결제하기
3. 할부보다 일시불 결제
4. 신용상태 주기적 파악(KCB, 나이스지키미 활용)
5. 공과금 성실하게 납부,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가산점 반영
6. 부채는 지혜롭게 관리
(빚투, 영끌, 대부업체 및 캐피탈 대출 지양)

대출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가계 대출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평균 금리를 3%로 가정했을 때 매년 한국의 가계가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만약 당신이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채를 갖게 된다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에게 빚 상환을 독촉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 도움을 줘야 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당신은 부채로 인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신앙과 정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신용카드 등의 부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부추겼던 사탄이 현대인을 속이는 또 다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 절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 남용 등은 맘몬의 또 다른 형태이다.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예전에 착한 빛과 나쁜 빛을 설명한 적이 있다. 착한 빛은 내 집 마련, 전세금 마련 등 꼭 필요한 경우 가계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받는 대출이다. 나쁜 빛은 그와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데 과소비성 또는 빚투(빚내서 투자한다는 의미) 목적으로 지는 빚

이에 해당한다.

신용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저야 하는 착한 빛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잘 갚는다고 믿기 때문에 고신용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훨씬 적은 이자를 갚아가면서 자산을 불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신용관리를 잘해서 자신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첫째, 연체 없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것이다. 만약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나의 연체정보를 금융기관에서 공유한다. 그래서 추후 대출 및 카드 발급 등 금융 활동에 제약이 따라올 수 있다. 단 1원이라도 카드연체는 연체이다.

둘째, 신용카드를 공과금 등 꼭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하고, 연체를 막기 위해서 매월 이체일에 맞춰 충분한 금액을 입금해놓아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를 가급적 할부 거래보다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할부는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를 여러 번 나눠 미뤄놓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본인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를 권한다. 우리나라에는 ‘올크레딧(KCB)’과 ‘나이스지키미(NICE)’라는 두 군

데 신용정보평가기관이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 회사들이 평가한 신용점수를 그대로 반영해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다음 수시로 나의 신용점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것을 신용평가사에 제공하면(앱으로 접속해서 서류 없이 간단하게 제출) 신용점수에 가산점이 반영될 수 있다.

부채관리를 잘해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빛에 해당하는 꼭 필요할 대출이 아니라면 가급적 대출을 받지 말 것을 권한다.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는 신용점수에 치명적일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무려 5년 동안이나 금융기관 전산에 남아있을 수 있다.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부채가 많으면 대부업, 카드로, 캐피탈 등 대출이자 높을 순서로 최대한 빨리 갚아나갈 필요가 있다. 대출을 하나씩 상환해갈 때마다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남아있는 대출 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도 행사할 기회가 있다. 이보다 지혜로운 재테크가 없지 않을까.

신용점수와 하나님의 신뢰도 올리기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 나누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빛에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돈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적은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실 것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서 과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끼고 아낀 돈으로 대출을 갚는 일,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곤궁에 처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등 조그마한 일상의 노력이 모일 때 나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신뢰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마음 그릇을 키워라!

“**‘포라이 질량보존의 법칙’**(어느 조직을 가든 고난을 주는 사람은 존재한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쾌한 언행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직장동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두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 나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멘토님!”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일까? 오래전 결혼예비학교에서 알게 된 꽤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이 있다. ‘결혼은 상처 입은 A와 상처 입은 B의 결합’이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서로의 상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을 배우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사는 내내 서로의 상처를 건드려서 더 아프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직장 생활은 결혼이 아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소중환 일터에서는 자신의 상처나 상대의 상처가 무엇

인지 모른다. 그저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치열한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람다운 접근법으로 더불어 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잘 해낼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본다.

첫째, 질량보존 법칙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슬프게도 또 다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곳에 또 다른 형태의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둘째,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힘들 듯이 나로 인해 누군가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나도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나 역시 언제든 질량보존 법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종종 주위를 돌아보면 좋겠다.

셋째, 상대의 행동이 아닌 Needs(필요, 요구)에 집중하며 호기심을 가져보라.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동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마음이기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정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의 가장 깊은 속마음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맡은 일을 잘하고 싶고, 어떤 절박한 상황이 그를 압박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Needs에 집중하며 호기심으로 바라본다면 98%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2% 정도는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충분하다. 2%의 여지가 생기면 우리 안에는 이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한다.

넷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는 말씀을 품고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모욕적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친절하고 겸손한 동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는 그들과 조금 달

라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그를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라. 혹은 그에게 배울 점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라. 그에게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만 해보라. 물론 그의 반응은 여전히 당신을 실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나에게 수없이 실망하셨지만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갇힌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흘려보내자. 하기 싫은 날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날 가능한 만큼만 해보자. 작은 칭찬 한마디, 작은 인정 한마디, 그의 상처에 연고 발라주는 썸 치고 뭐든 해보자. 누가 알겠는가? 당신으로 인해 그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새살이 돋게 될지. 그러는 사이 당신의 마음 그릇은 한 뼘이나 커져 있을 것이다.



이문희 멘토
(찬양공동체,
비즈니스 전문코치)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기념일의 의미와 중요성

“**결혼기념일은 부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인데 남편이 종종 잊어버립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먼저 말해서 기억나게 해야 할 정도로 남편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 버렸는지 속이 상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결혼한 날은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꾸려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한 몸이 됐다. 많은 하객과 주례자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함께 살겠다는 언약에 참여하는 날이 결혼식이다. 결혼기념일은 부부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다.

가족 구성원이 관계적으로 건강하고 잘 지내는 가정은 기념해야 하는 날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낸다. 그러나 불화가 있는 가정은 기념일, 혹은 가족 행사가 피하고 싶은 날이 되기도 한다. 기념해야 하는 날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배재현에 의하면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주로

하는 활동은 외식, 꽃을 비롯한 선물 교환, 애정 표현,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하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기념일이 갈등과 섭섭한 시간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의 결혼기념일 망각’이 단연 첫 번째다. 그 다음은 ‘형식적인 기념’,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닌 기념 활동’ 등이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준비했던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인 시간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에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부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내가 받는 실망감은 남편보다 더 크다. 따라서 결혼기념일을 귀하게 여기고, 매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기념일을 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념일 날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기념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선물도 미리 상의가 된 상태에서 주고받는 것이 좋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선물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예를 들어 립스틱을 선물하고 싶은데 제

품, 색깔, 기능, 크기, 터치감 등 세부적인 사항이 너무 많다. 미리 상의해서 결혼기념일을 준비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 부부는 결혼기념일마다 1년 동안 서로에게 감사했던 것을 써서 나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서로 성장하고 싶은 영역에 대해 나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다보니 부부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이벤트와 선물도 도움이 되지만 부부간에 감사와 미래에 대해 나누는 대화도 기쁨을 준다.

가족이 함께 기억하는 행사는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하나라는 소속감을 증대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가족행사를 건강하게 잘 치르면 서로에 대한 감사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결혼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내면 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이전에 경험했던 낭만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다. 첫 만남, 연애 때의 다양한 에피소드, 결혼 과정을 회상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부라면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혼만족도는 결혼 후부터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가정을 정신없이 꾸리다 보면 서로만 바라볼 수 없고, 다양한 일에 휩쓸리는 경

우가 발생한다. 서로에 대한 낭만과 사랑을 속삭이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부부가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된다. 결혼기념일은 소원해진 관계를 반전하는 좋은 기회다. 서로가 만족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고 상의해서 잘 보낼 수만 있다면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마 19:4~6)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부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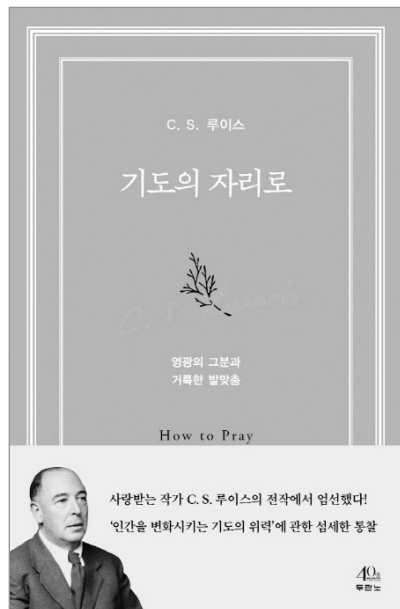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기도를 질문하라!



〈기도의 자리로〉
C.S. 루이스 저 | 두란노 | 10,000원

기도가 무엇일까? 유대교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하고, 무슬림은 매일 다섯 차례 기도하는 계율을 따르며, 불교와 힌두교 심지어 인디언들도 기도를 한다. 신앙이 없는 친구에게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 “고맙다”며 좋아한다. 칼 바르트는 이러한 보편

적 본능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난 나침반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침반의 착각은 위험을 초래한다. 올바른 방향은 기도의 전제다.

우리는 때로 기도에 대해 질문한다. ‘기도란 무엇일까?’,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는 왜 필요한가?’,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리는 것이 아닐까?’, ‘때로는 기도가 의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기도해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기도에 앞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곤 한다. 홀로 질문할 때는 의심과 불안이 싹트지만, 공동체 안에서 질문은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인도한다.

오늘 소개하는 책 〈기도의 자리로〉는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줄 신앙적 스승이자 멘토인 C.S. 루이스의 저서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C.S. 루이스가 쓴 여러 글 중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채를 걸러 한 곳에 모아 둔 편집본이다. 그의 에세이, 편지, 시 등 모든 저서에 두루 퍼져 있는 기도

에 관한 깊은 묵상을 이 한 권의 책에서 엿볼 수 있다.

책 〈기도의 자리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도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뜻은 무엇인가?’, ‘다윗처럼 즐거이 기도하려면’ 등 총 15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C.S. 루이스의 답이 있다.

책 〈기도의 자리로〉가 여러 저서의 조각 모음이라는 사실은 C.S. 루이스가 흠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에 대해 조금씩 겸손하게 적어 내려갔음을 일러준다. 그 사실은 결코 기도가 한순간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C.S. 루이스는 1949년 8월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사람이 못 되네. 오히려 건방진 소리가 되겠지.”

겸손히, 오랜 시간 기도에 대해 고민했던 C.S. 루이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기도마다 간구하는 “주시옵소서”라는 언어만 봐도 그렇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언어이기도 하다. 분명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운 이 언어의 형식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고독 앞 냉수 기도가

변형된 것은 아닐까? 지니의 램프를 닮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익숙했던 단어가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는 바로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도라는 행동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면(너무 훌륭하지만), 이제는 질문할 때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를 낯설게 바라보고, 기도의 본질을 고민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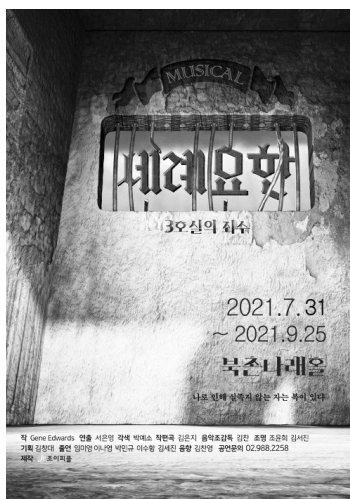
이 책에는 기도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해답서가 아니다. 오히려 읽고 나면 기도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고, 당연했던 기도의 부분들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고민과 낯설이 다시 질문을 낳고, 그 꼬리를 무는 질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책 이름이 참 신비롭다. ‘기도의 자리로’.



최종현 전도사
(허브대학부)

볼 만한 공연 뮤지컬 ‘세레 요한’

한 가지 희망!



뮤지컬 세레 요한은 기독교 스토리텔링 작가 지니 에드워드의 책 〈3호실의 죄수〉를 각색한 작품이다. 세레 요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을 그려냈다. 세레 요한이 간했던 ‘3호실’은 과거와 현재,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상징한다. 세레 요한은 감옥에 갇혀 목숨을 잃는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지 희망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했다.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한 세레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뮤지컬 세레 요한은 7월 31일부터 9월 25일(토)까지 북촌나래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1회만 한다. 12세 이상 관람가다. 관람료는 4만 원(중고대학생 30%, 직장인 30%, 3인 이상 가족 30%, 백신접종자 40%, 목회자 50% 할인).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한 과부 ‘백선행 여사’



백선행 여사

구한말 평양에 이름난 과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백선행이었다. 백선행 여사는 1848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4살에 한 농민과 결혼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병으로 남편을 잃었다. 백선행 여사는 재가하지 않고 과부인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백선행 여사의 근면함은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다. 백선행 여사는 ‘먹기 싫은 것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고’를 생활신조로 삼고 한평생을 살았다.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들인 양자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지만 먹기 싫은 것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하는 삶 덕분에 제법 재산을 모았다.

백선행 여사가 갑부가 된 것은 그녀가 70살 무렵인 1917년이다. 백선행 여사가 불현듯 대

동강 건너편 만달산 땅 수천 평을 샀다. ‘납편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속았다’, ‘만달산 석회석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당시 황무지를 그것도 수천 평이나 웃돈을 주고 산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평양 시내에 백선행 여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2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다. 일본인 시멘트 사업가 오노다가 만달산 인근에 매장된 석회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10배 가격을 제시했다.

갑부가 된 백선행 여사는 여전히 검소했다. 손님 대접을 하고 남은 음식을 따로 보관했다가 먹었다. 이렇게 검소한 백선행 여사가 아끼지 않은 것이 있었다. 교육에 대한 투자다. 백선행 여사는 광성보통학교, 송현여학교, 송인상업학교, 창덕보통학교 등 평양 시내 사립학교에 18만 원(200억 상당)을 기부했다.

1933년 백선행 여사의 장례식이 사회장으로 거행됐다. 일가친척 한 명 없었지만 수만 명의 시민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녀의 신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부로 어려운 삶을 살 때 교회에서 그녀를 각별하게 돌봐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성북공동체 요르단 온라인 아웃리치

그 자리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시대



성북공동체 성도들이 온라인 아웃리치로 요르단 선교를 체험하고 선교사와 은혜를 나눴다.

지난 7월 2일 요르단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떠났다. 성북공동체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최초의 해외 아웃리치였다. 아웃리치 준비팀은 설레는 마음으로 꼬박 두 달을 준비하면서 드림팀이 되었다. 모이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아이디어를 냈다.

요르단은 중동지역에 있는 나라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르우벤 지파가 정착한 땅이다. 성북공동체 최희영, 이양아 선교사님 부부가 2007년 태권도 선교사로 파송된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는 요르단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항공권까지 발권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좌절된 안타까운 경험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아웃리치가 주는 의미가 남달랐다.

요르단 온라인 아웃리치 당일, 준비팀(드림팀)이 목동 스튜디오에 모였다. 유남종 총무님의 사업장을 스튜디오로 꾸몄다. 방송국 근처라 스튜디오라는 느낌이 더욱 생생했다. 세계지도가 걸려있는 무대를 배경으로 요르단 온라인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님 부부가 스튜디오에서 함께 했다. 아웃리치를 떠나는 시간이 되자 성북공동체 가족들이 속속 대형화면에 등장했다. 다락방별로 요르단 국기 색깔인 붉은색, 흰색, 검은색, 녹색 옷을 입고 요르단을 한껏 축하했다. 무대에 걸린 세계지도, 선교사님 부부와 아웃리치 준비팀(드림팀), 대형화면에는 성북공동체 식구들의 요르단 국기 색깔의 옷들이 물결치고 스피커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우선 선교사님 가족을 만났다. 온 가족이 함께 국내에서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영상을 시청했다. 최희영 선교사님이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행 18:9-10)'를 주제로 기쁨을 뛰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그 메시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리는 태권도장에서 최희영 선교사님이 현지 아이들에게 태권도

를 지도하고 있었다. 거리에 나와 도시를 걸으면서 공동체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 페트라, 와디럼, 느보산도 방문했다. 거대한 붉은 바위에 세워진 페트라 앞에서 잠시 성경으로 들어갔다.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원전 4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려보았다. 와디럼은 붉은 사막이다.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 느보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올라 여리고 평지를 바라봤던 곳이다. 선교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어우러져 그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영상 아웃리치는 현지에 직접 가는 느낌을 줘서 감동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이양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선교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꼈고,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을 목놓아 불렀다. 나도 연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성북공동체 새싹들이 보낸 "선교사님 사랑해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영상편지는 기쁨과 감동을 최고조로 만들었다. 요르단 땅의 복음화와 선교사님을 위한 뜨거운 합심기도를 하고 성북공동체 온라인 아웃리치를 마치고 귀국했다.

선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지를 가야만 하는 선교 시대에서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시대이다. 요르단 온라인 아웃리치는 지체 몇몇이 떠나는 아웃리치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아웃리치였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체험하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최희영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 온 아랍 과자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성북공동체 요르단 온라인 아웃리치의 은혜를 기억해본다.

/ 조기훈 집사(성북공동체)

◆ 길청년부 레바논 온라인 아웃리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길청년부가 레바논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용성 선교사와 함께 온라인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공동체 온라인 주보가 SNS 카카오톡(이하 카톡)으로 온다. 카톡에 들어가 주보를 보는데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문구가 있었다. '해외 레바논 아웃리치' 라고 쓰여 있었다.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온라인 아웃리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 마음이 생겼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그러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최용성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주일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줌(Zoom)으로 최용성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최용성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난민사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에게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멀기도 하고 잘 모르는 나라다. 그리고 레바논에 왜 난민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최용성 선교사님이 시리아 내전을 피해 레바논으로 나온 난민들이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레바논이 시리아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난민들의 유입이 많은 것이다.

시리아 난민, 나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잊힌 존재였는데 최용성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떠올랐다.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다는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10여 년이 흐르면서 내 머릿속에서 점차 잊혔다.

최용성 선교사님은 레바논 B지역에서 난민촌에 거주하지 않고 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쿠르드족을 품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말씀하셨다.

현재 레바논은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선진국과 다른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쿠르드

족의 열악한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알해도 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도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만 걱정했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그래서 레바논 온라인 아웃리치에 함께 했다.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데 20달러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웃리치 회비 2만 원이 미화로 환산하면 20달러 정도다. 하나님은 내가 내는 돈이 단순한 회비가 아니라 쿠르드족을 위한 헌금임을 깨닫게 하셨다.

레바논 온라인 아웃리치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무슬림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을까? 무슬림과 부딪치지 않고 접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도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복음과 말씀을 들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레바논 온라인 아웃리치 마지막 시간에 소감을 나누면서 최용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 약속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모든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떠올리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 배마리아 자매(길청년부)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찬송을 했던 그날이 생각난다. 삶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그때의 내가 과천의 어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에 마음껏 흐느끼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다.

하나님께 폭 빠져 교회에 헌신했다. 내 주변에는 내가 섬기던 교회 사람들만 있었다. 가족도 이웃도 모두 떨어져 있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내 모습만 남아 있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내 신앙을 점검해봤더니 교회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졌다.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듣고 싶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이름만 들어왔던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졌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장체희 성도(과천의왕공동체)가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알아가고 싶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새신자 과정을 동영상 강의로 들었다. 네 번의 새신자 과정 동영상 강의와 열여섯 번의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언제나 은혜를 베푸

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지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에 의해 많은 통제를 받아왔다. 수많은 정죄와 판단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마음의 짐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지난 16주 동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

던 불순물을 하나씩 꺼내 하나님께 드렸다. 못 견딜 만큼의 고통을 꺼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불순물을 모두 거두어 주셨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마음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새신자처럼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셨다.

내 삶은 무속신앙을 따르는 시대에서 받는 핍박, 무슬림 율케와 오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정식구들, 늦은 취업으로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뿐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내 삶이 마치 다윗과 같다는 마음으로 환란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셨다. 시험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요, 기도만이 영적 싸움 승리의 도구인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기를 소망한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진짜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 장체희 성도(과천의왕공동체)



코로나19, '성경공부'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OBC '하나님의 성품' 수료 간증

주일 아침은 평일보다 분주한 편이다. 이른 시간에 사역이 있거나 주일 1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한 게 아니다. 한껏 여유를 부리면서 몽그적거린다 다급해져서 허둥허둥 서두르기 때문이다.

아이스쿨에서 OBC '하나님의 성품' 과정에 대한 공지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님이 실수로 오전과 오후를 바꿔 쓰셨나?'라는 생각도 했다. 왜냐하면 강의 시간이 주일 아침 7시였기 때문이다.

'말도 안 돼. 주일 아침 7시 수업이라니!'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주말이 되었다고 축 처지거나 늘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사건으로 친밀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전에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막연함이 있

힘이자 산 소망 그리고 큰 기쁨



이상은 성도(김포공동체)는 OBC '하나님의 성품'을 수료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고백했다.

었다고 할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OBC 하나님의 성품 수업을 들으면서 사라졌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주 속 한 점이나 마찬가지로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 것이 큰 감동이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기충족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다. 세상에 무더진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두드리셨다.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거룩과 너무 거

리가 먼 나에게 다가오셔서 친구이자 신랑이 되어 주셨다. 또한 십자가 사랑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당신을 사랑하고 지극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에 감동했다. 나도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과 가까이 다가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지난해에 이어 사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다. 모든 것이 빠듯하고 불투명하다. 이것이 길이다 싶어 가보면 막다른 골목이다. 씁쓸한 상황과 좌절에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OBC 하나님의 성품 수업을 들으면서 막막한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됐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일수록 강하고 의로운 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산 소망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임을 고백한다.

/ 이상은 성도(김포공동체)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제7차 장로아카데미 강의를 온라인(Zoom)으로 듣고 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장로”

7차 장로아카데미 40명 수료

제7차 장로아카데미가 지난 7월 10일(토) 12주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한 이번 장로아카데미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장로 40명이 수료했다. 서빙고, 양재, 인천, 남양주, 일본, 미주(열바인, 네이퍼빌시카고, LA, 뉴저지, 앵커리지, 밴쿠버), 시드니, 아부다비온누리교회 소속 장로들이 참가했다.

제7차 장로아카데미 수료식은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학사보고 및

축사, 수료자 간증, ‘장로의 기도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은 장로님들의 영성 덕분”이라며 “예수님이 주신 교회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선종원 장로(밴쿠버온누리교회)는 “온라인 장로아카데미가 계속 이어져서 해외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

고, 박호택 장로(요코하마온누리교회)는 “선배 장로들과의 소통이 매우 유익했고,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진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호 장로(장로아카데미 대표)는 “계속 교제하는 장로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장로아카데미는 장로들을 위한 학습공동체다. 2016년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관계와 소통, 한국교회와 장로교회,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등을 주제로 배우고 토론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 SUMMER PASSION ‘창조_시작’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차세대 파워웨이브가 주최하는 SUMMER PASSION 집회가 지난 7월 11일 ‘창조_시작(始作)’을 주제로 막 올랐다. 8월 1일(주일)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7월 31일(토)에는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대면 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대면 집회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PASSION ‘창조_시작(始作)’에서는 ‘믿음의 시작’, ‘세상의 시작’, ‘생명의 시작’, ‘홍수의 시작’, ‘비전의 시작’을 주제로 4주 동안 5번

의 강의를 이어진다. 한국창조과학회 소속 강사들이 총출동한다.

이은일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경호 교수(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하주현 교수(경희대학교 의학과 분자생물학교실 교수), 황승아 교사(한빛중학교), 정원종 교사(판곡중학교), 정우성 연구원(삼성전자수석연구원), 오경숙 박사(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물리학박사), 이상두 원장(예은치과 원장), 이만희 교수(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등이 강의한다.

/ 홍하영 기자

“옆에서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전 청년전도집회 ‘The One’ 개최

지난 7월 11일(주일) 대전온누리교회가 청년전도예배 ‘The One’을 개최했다. 청년, 교역자, 전도대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도대상자 6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서 ‘동행으로의 초대’ 카드를 작성했다.

대전 청년전도집회 ‘The One’은 ‘구원의 길’, ‘믿음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 ‘한 걸음’을 주제로 진행됐다. 찬양 사역자 나무엔(CCM 가수), 가수 효린(씨스타), 가수 김신의(몽니), 박진아 작가(샌드애니메이션)가 특별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한화수 목사(드리머스청년부 담당)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석영 자매(드리머스청년부)는 “전도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돕고 기도하겠다”고 간증했다.

온누리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이신문 작품, 아웃리치 간증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아웃리치 간증 및 사진과 어린이신문 지면에 들어갈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여름 아웃리치 간증은 공동체의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역 사진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간증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 기본 여백 설정)이다. 사진은 사역하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이 나 공동체 단체 사진 등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 아웃리치 사진은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어린이신문에 들어갈 작품은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A4용지 기준 2-3줄),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서 격주로 게재하는 어린이신문 ‘우리들의 작품’ 코너에 순차적으로 실린다.

문의: 02-6959-0001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큐티스쿨은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큐티의 정의와 목적’, ‘큐티의 모델’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7월 18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8743-9624

내적치유학교 6기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23일(금)은 오후 3시, 24일(토), 30일(금), 31일(토)은 오후 4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내적치유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성품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회비는 6만 원이다.

문의: 010-6330-7634

한국어선교학교 ‘한국어티칭스쿨’ 모집

다문화 및 이주 난민, 현지인 대상

한국어선교학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티칭스쿨(KLTS)’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나 타교회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소개하는 다문화 및 이주 난민, 해외 선교사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소개하는 현지인이다. 7월 31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가을학기 한국어티칭스쿨은 8월 21일(토)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한국어티칭스쿨 강사는 지난 6월 26일 끝난 한국어선교 심화교육과

정을 이수한 60명이다. 다문화 및 이주 난민들과 온라인(Zoom)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이성우 팀장(한국어선교학교)은 “국적 향상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 수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다문화 및 이주 난민, 유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8948-1215, ynewoo@naver.com

‘온라인 아웃리치를 위한’

How Mission 총체적선교스쿨 7기 수료

‘How Mission 총체적선교스쿨’ 7기가 수료됐다. ‘온라인 아웃리치를 위한’을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How Mission 총체적선교스쿨 7기 과정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총체적 선교 원리’, ‘필요와 자원’, ‘구호와 개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여름 아웃

리치 시즌을 맞아 ‘총체적인 온라인 아웃리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대해 수강생들은 ‘선교사 가족 위로’, ‘현직 의료원 협력 원격진료’, ‘원격 학업 지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채, 소비습관 고민 한방에!

부채탈출119, 25일까지 신청자 모집

과도한 부채, 감당하기 힘든 소비습관 고민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왔다.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탈출119 참가자를 7월 25(주일)일까지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개인부채,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이 재정관리 방

법과 부채탕감 방법 등을 제시해준다.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도 안내해준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skyaiaman@naver.com)이나 팩스(02-6455-2644)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아치요온누리교회 '40일 성경탐구' 수료 간증



/ 요시하라 카오리 사모(아치요온누리교회)

성경을 더욱 공부하고 싶다!

점점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치요온누리교회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부 김철희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40일 성경탐구'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배움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뒤야 하는 상황은 무엇을 하든지 제한이 따랐다. 그러나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40일 성경탐구를 하면서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감사님이 집에 방문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처음 40일 성경탐구 과정을 신청할 때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져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배우고 싶은 생각이 걱정을 이겼다. 금요일 밤은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그동안 구약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40일 성경탐구 과정에서는 구약성경을 10개 시대로 나눠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 주었다. 특히 구약 역사서 17권 중에서 이야기가 있는 11권만으로도 역사 흐름이 이해되었다. 늘 어렵다고 생각하며 읽었던 구약성경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김철희 목사님은 교재와 별도의 자료를 많

이 공유해주셨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대표에 구약의 뼈대가 되는 열왕기 왕들과 예언자들의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알기 쉬워 좋았다. 40일 성경탐구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다.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남유다의 혈통이 예수님 탄생을 위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바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치요온누리교회 40일 성경탐구 훈련에 성도 22명이 참가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더욱 활발해졌다. 모두 웃는 얼굴로 즐거워하고, 숙제했고, 배운 내용을 나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고백하셨다. 나 또한 성경을 더욱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해준 성도님 22명과 수고해주신 김철희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세례 간증



/ 최영아 성도(성동광진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 나는 제대로 성경을 공부한 적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한 적도 없었다. 원하는 소원만 이야기했다.

남들은 겪지 않을 법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누구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원망만 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우상숭배와 미신을 믿었다. 올해 초에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에 다니기도 했다. 전국을 다니며 절을 해도 악몽에 시달렸다.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울하고 불안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한 번만 새벽기도에 나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하셨다. 아침잠이 많은 내가 4주째 새벽예배를 나가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얼굴빛, 생각, 생활 등

이 많이 바뀌었다. 숨 쉬듯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세상 어떤 것도 지금 같은 평안을 가져다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셨다.

새벽예배에 나온 첫 주에 이사야 58장 8절을 통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너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겠다. 너의 울음을 밝혀주겠다. 너를 동쪽에서 뜨는 해와 같이 밝게 빛나게 해주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아직 나는 신앙이 깊은 분들처럼 방언한다든지 뜨거운 임재를 느낀 적이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을 터놓고 여쭙 수 있는 존재이자 아버지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기를 소망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결&사랑 선교사(대만)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사역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어'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만 아이들의 환경과 문화를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친구와 통화하면서 괜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도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이 드신 선생님 있으면 말 잘 안 했잖아. 가까워지기도 힘들고...”

생각해보니 학생들과 저는 30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저와 아이들 사이에는 큰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문화적 차이와 세대 차이가 있어도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인생의 선배로서, 선교사로서 믿음의 조언과 기도를 해주고, 이를 통해 다음세대로 신앙과 믿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

신 귀한 영혼들을 제가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만이 방역 모범국가로 한참 위상을 높이고 있었는데, 올해 5월 초 느슨해진 방역을 틈타 공항에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 가까이 확진자가 1천 명이 안될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만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회 활동도 정지되었습니다.

실상가상 최근 대만은 극심한 가뭄과 전력 부족으로 지역적인 단수와 단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만 기독교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라며 인터넷으로 크고 작은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질수록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임미라 성도(성북공동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왔다

10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순장학교 훈련을 마쳤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다.

순장학교 훈련을 시작한 이후 집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상황에 몰입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몰두하고, 나의 내면을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마음에 새겼다.

이번 일을 통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 겉으로 크게 별어진 상황에 함몰되어서 사건을 확대하는 것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는다. 잠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잠 16:9)”고 말씀하셨다. 답답히 나아가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겸손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겸손은 예수님이 쓰워 주신 명이다. 이 명에로 인해서 나의 집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나의 겸손의 집이 완전히 내려지기를 바란다.

순장사관학교 9주차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 시편 67편 1절이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열방으로 나아가 어둠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 축복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왜 세계를 품어야 하는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택과 열방을 위한 큰 계획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었다.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다가왔다.

순 활성화 위해서 새롭게 적용한 것은 ‘순 중보기도’다. 우리 순에 적용해서 3주 동안 진행하고 있다. 함께 중보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십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장로칼럼

하용조 목사님과 바로 그 교회

홍범식 장로
(두란노해외선교회)

“여러분은 온누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개척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밤낮으로 제자훈련을 받았다. 나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 삶의 현장과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왔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먼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며 나아갔다.

1985년 청년이던 홍범식이 이제 중년이 되었다. 온누리교회 개척 당시 청년이던 성도 150여 명이 모여 ‘온누리 빛’이라는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그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전을 품고 교제하며 그 꿈을 이어가고 있다.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

2007년 내가 장로로 장립 받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장로 장립을 받은 나는 ‘너무 부족한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십니까?’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열방의 선교사들을 섬기게 되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열방에서 사역하는 400여 명의 선교사들과 울고 웃으며 배웠다.

Acts29비전빌리지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온

누리교회 비전을 나누는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이라는 봉사가 있다. 봉사를 하던 중에 인도 오랏사주에서 오신 현지인 목사님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다. 그 목사님들은 온누리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는 “온누리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질문하셨다. 나는 온누리교회 초기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당시 목사님 사례를 드리기 힘들어도 복음이 필요한 곳, 힘들고 소외된 곳에는 사람과 재정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온누리교회가 부흥했다고 하용조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전했더니 모두 공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나도 선교지에 가야 하는데.”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사업 파송식을 할 때였다. 하용조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시며 “홍 장로는 좋겠다. 나도 선교지에 가야 하는데”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온누리교회 25주년 축제에서는 하용조 목사님의 눈물이 모든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 그 다음해 선교사들은 하용조 목사님 소천 소식으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 하용조 목사님 10주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권사칼럼

시니어 반란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어느새 어딜 가든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자연스레 불리고, 경로석 앉기가 민망스럽지 않은 나이가 됐다. 마음은 아직 소녀 같은데 누가 봐도 어르신이고, 할머니다. 허리를 펴고 꼴짓이 걷는다 싶어도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면 저게 내 모습이지 싶다.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은 나이가 되니 만날만한 건강이 될 때 부지런히 만나자 약속한다.

여고 동창들을 만나는 날이면 나이의 70% 즈음은 똑 떼어 ‘나이아가라 폭포’에 던져버리고 마음은 여고 시절로 돌아간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웃음소리에 놀라서 오다가도 도망갈 만큼 엔도르핀이 솟는다. 비록 마스크 속의 환담이지만 오래 잃었던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며 서로 있음이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하다.

얼마 전 부친 사는 친구가 아들 장기간 턱을 낸다고 번개탕을 소집했다. 코로나19 위기가운데서도 경사를 치르고 감사로 베푸는 마음이 고마워 부친까지 한결에 달려갔다. 낙지 볶음에 연포탕까지 오랜만에 입이 호사한다. 새로운 가정의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마음 모아 축복한다. 식사 후에는 수려한 한옥 처마와 넓은 인조 잔디가 카펫처럼 깔린 조경이 근사한 찻집에 갔다. 이롭고 생소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푸른소금 슈페나라는 환상적인 커피의 매력에 빠져본다. 푸른 빛의 박하향이 나는 달달하고 시원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맛이 젊어지는 마법의 약물이란도 마시듯 새롭다.

식사와 다과까지 마친 후에는 오밀조밀 꾸며진 친구의 아파트에 퍼즐러 앉아 읽고 있던

옷도 벗어 돌려가며 입어보고 친구가 아끼던 옷들을 분양받아 겹쳐보며 한동안 패션쇼를 연출하면서 숨이 넘어갈 듯 깔깔거린다. 끝날 줄 모르는 수다에 결국 맛난 비빔 메밀국수로 저녁을 먹은 후 예쁜 찻집에서 커피까지 마시고서야 못내 아쉬워하며 헤어진다.

만나지 며칠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은 유산 상속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또 다른 친구가 점심을 사겠다고 호출해 입이 호사를 누린다. 점심 후에 올림픽 공원의 장미가 흐드러진 화원에서 아직 마음은 소녀인 할머니들이 꿈의 그림자를 잡느라 카메라 렌즈 포로가 되어 양귀비 꽃밭에서 양귀비도 되어보고, 유채꽃 노란 낭만에 젖어 가는 젊음을 붙잡아도 본다. 종일 꽃밭에서 노닐었더니 옷에 장미향이 배어 향긋한 내음이 난다.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게 동행하며 서로의 향기로 물들기를 소원해본다.

내친 김에 아실아실한 보라색 원피스를 새로 사 입고 눈을 즐겁게 해준 또 다른 친구가 저녁까지 쏘겠다. “친구들 만났으니 엄마가 커피 한 잔 사세요”라며 용돈을 주머니에서 부쳐주는 또 다른 할머니의 효녀 딸 덕분에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며 저녁 늦게까지 함께 하고도 아쉬워 다음 약속을 뒤미처 잡는 못 말리는 열정들! 늙으면 재테크보다 우테크(友Tech)라는 말이 하나도 그런 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졌던 하루! 파사롭과 행복한 마음을 안고 전철을 기다린다. 전철 안에 떼어 놓고 오고 싶은 나이가 널름 먼저 올라탄다. 비어 있는 경로석에 그곳이 앉아 나이를 잊고 깔깔거리며 웃었던 행복한 하루를 돌아본다. 아직 남은 날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매일 매일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고 싶다. 오늘도 내 일기장을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서로를 위해 모쪼록 건강하고 멋지게 익어가자.

신앙에세이

한은선 목사
(여호수아청년부)

절망과 소망의 기로에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준다. 과거의 인도하심과 오늘의 공급하심을 되새기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준다. 매일 매일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는 삶이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몇 주 전 유튜브 채널에서 ‘은혜’ (손경민 작사)라는 노래를 듣다가 손에 잡고 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하염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 곡의 가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임을 고백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8)라고 말씀하셨다. 감사는 기쁜 날에는 해도 되고 슬픈 날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감사라는 주제에 대하여 묵상하고, 실천할수록 감사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주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와 회복의 통로이자 믿음의 도약임을 깨닫는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을 헤매 때, 절망이 마음을 침식하고 우리의 앞길에 한 줄기 빛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준다.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신뢰하고, 신실하고 선하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해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 내가 하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해주거나 대비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상대가 대신 해주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때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감사가 터져 나올 때는 언제인가? 너무 연약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다.

과거의 축복을 세어보는 것도 감사의 한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명령은 과거의 크고 작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라는 명령이다.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심으로 우리가 진심의 감사를 느끼는 대상이 되게 하라는 명령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만민 가운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즐겁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감사하는 성도의 삶,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자녀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2021 *Countdown* 그 은혜 속으로!

- 7월 5일(월) Count 5 '임재'

임재(단 6:10)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또 한 번은 다니엘을 질투한 신하들이 다니엘의 신

앙을 이용합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을 어겨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곳은 풀무 불과 사

자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풀무 불에서 타지 않고, 사자굴에서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많은 임재 경험이 나옵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하고 황홀한 기적 체험이 아닙니다. 진짜 임재는 기적이 아니라 기도로 실현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목적이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같은 기도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 7월 6일(화) Count 4 '거룩'

화목에서 거룩으로, 거룩에서 화목으로(골 1:21~23)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망, 게으름, 안일함, 무책임, 탐욕 같은 욕구를 모두 잠재우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욕구를 비워낼 수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만지시고, 창녀와 식사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죄인

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부정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모두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은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삶에서

매일 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진짜 거룩은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가 화목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 7월 7일(수) Count 3 '부르심'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사 43:1~10)

박지범 선교사(LAMP 지도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와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귀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째,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싶다

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셋째,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간구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말씀은 읽는데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귀를 누리

위해서는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귀를 함께 누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 7월 8일(목) Count 2 '선교'

너희에게 올인(All In)한다(요 20:19~22)

권성찬 선교사(GMF대표)

하나님의 첫 번째 올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올인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올인은 예수님의 제자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란 예수님의 제자공동체가 영적 재생산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루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 올인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올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공동체를 선교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제자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올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 7월 9일(금) Count 1 '파송'

세상이 믿게 하소서(요 17:20~26)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째,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셋째, 이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제자

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냄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 하나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하나 됨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 됨입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 됨입니다. 넷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지체들의

하나 됨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 됨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네 가지 하나 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혼 한부모가정을 살리는 생명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의 생명뿐이었듯이
이 세상에 온 모든 생명은 사랑받는 존재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세요!

기간 7월 11일 - 7월 25일

후원 하나은행 573-910010-601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후원금 전액은 미혼 한부모가정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CGNTV X LOVE THE WORLD

러브더월드는 미혼 한부모가정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자세히보기